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 22:6)

오늘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5월 21일) **장애인 주일**

*자세한 사항은 7면 참조

수요 예배 강사

일시: 5월 17일 수요 예배시
강사: 김영근 선교사(튀르키예)

2023년 소망부 수련회

일시: 2023년 5월 16일(화) 10:00~15:00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귄 (요일 1:3~4)
대상: 은퇴하신 성도 장소: 갈릴리홀

로마서 강해(1~3장)

일시: 5월 19일(금) / 로마서 강해(12), 룸 3:26~21

교회 앞마당 공사 준공

목요 차나눔 행사 및 앞마당 음악회 실시 일시: 5월 18일(목) 11:30~ 13:00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찬양제

충현 찬양 페스티벌

참가자격: 충현교회 등록교인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성도(인원, 연령무관)
참가곡: 5분 내외의 찬양(장르 무관, 반주는 참가팀 준비)
신청기한: 2023년 5월 28일(주일)
일정: **예선**-6월 11일 ~ 6월 25일 **본선**-7월 21일(금) / 최종 8팀

충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찬양 축제!
찬양에 은사와 열정을 가진 충현인들의 많은 참가를 기대합니다!

상금: 1등 100만원, 총 300만원
문의: 박요셉 목사 010-2516-7414/김상열 장로 010-6214-7237
신청방법:



< QR코드

2023년 제 1차 유아세례식 및 교육 안내

유아세례교육: 5월 14일(주일) ~ 6월 4일(주일) 총 4주간
유아세례식: 6월 11일(주일), 찬양예배 시 진행
신청 대상: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례교인 부모
신청 기한: 5월 14일(주일)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큐알코드)
문의: 박요셉 목사 (010-2516-7414)



날짜	시간	교육 내용	담 당	장소
5월 14일	14:00~15:00	유아세례의 성경적 의미	박요셉 목사	제1교육관 302호
5월 21일	14:00~15:00	하나님의 언약과 유아세례	박요셉 목사	
5월 28일	14:00~15:00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박요셉 목사	
6월 4일	14:00~15:00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박요셉 목사	
		문답	해당교구 & 부서	
6월 11일	주일찬양예배	유아세례식(14:50까지 본당 입실)		본당

도비야의 도발

(느헤미야 4:3-4)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우는가?”라는 관점에서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에스라서에서 재건하였던 성전과 느헤미야서에서 재건할 성벽으로 구성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이 둘러싸는 구조였는데, 에스라서에서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여 초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어른들이 재건할 성전 터의 규모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 세워진 성전처럼 왕의 손에 의하여, 최고의 자원과 전문가에 의하여 세워진 성전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힘을 합쳐 세운 성전이었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록 성전은 작았지만, 넓게 둘러쳐진 성벽이 옛적 성전과 같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작년, 느헤미야서 설교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은, ‘성벽은 가정이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과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 곧 성벽을 세우는 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도 성전과 성벽을 세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기에, 성벽이 세상 속으로 확장되는 모델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느헤미야 본문에는 성벽이 지어지는 과정을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추정되며, ‘암몬 사람’, ‘종이었던’이라는 수식어로 성경에 등장하는 도비야는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지만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오네시모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과거에 종이었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인격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도비야는 야비함과 집착성, 특히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비야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탁월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유대인 유력 가문의 사위가 되었고, 다시금 자신의 아들을 다른 유력가문과 결혼을 시킴으로 유대 사회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수완도 대단해서, 느헤미야서 끝부분을 보면,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던 도비야는 크게 혼쭐이 났음에도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방문한 사이, 성전의 큰 방을 자기 사무실로 차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던 백성들을 조롱하고 낙심시켰으며, 협박하고, 죽일 모의까지도 했음에도 주변 사람들은 도비야를 가리켜 선한 사람이라 칭찬할 정도(느 6장)로 문제가 심각한 인물이었습니다.

도비야의 도발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3절)” 도비야는 성벽 건축을 방해하기 위하여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하였습니다. 고대의 성벽은 외적 침입시 성벽 안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방어수단이었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거대한 공성무기가 필요할 정도이었기에 고작 여우로 인하여 금이 갈 정도로 가치없는 성벽이라는 말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도비야의 도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기도 했지만 한 손에는 방패, 다른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눈물겹게 응수했습니다. 싸우면서 일했고, 일하고 싸우면서 성벽을 지어나갔습니다. 성벽을 짓는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하나님의 집, 가정을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민교회를 섬겼는데, 1980년대 초중반에 이민 오신 분들의 정착하고자 하는 노력도 눈물겨웠습니다. 두 개의 직장을 가지는 분들이 흔했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다보니 20년이 넘는 이민생활에도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외에는 옆 동네조차 가 본 곳이 없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국내의 사정도 별로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을 성인으로 맞이했던 전쟁 1세대이자 우리 교회 1세대 성도님들께서는 시장에서 일하고, 자녀들

키우고, 교회 다니는 일에만 힘쓰셨을 듯합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 평생을 가정과 직장과 신앙생활에서만 보내신 1.5세대 교우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 가정을 세우는 일은 어떠할까요? 이전 세대에 비하여 교육도 상대적으로 잘 받고, 풍족한 세대이기에 예전보다 쉬울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먹거리나 주거환경과 같은 생존여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가정의 자녀들에 비하여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기에, 가정을 세우는 일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던 일에 버금갈 정도로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가정은 세워져야 합니다. 성벽이 세워져야 성전이 온전해지듯 가정이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도 더 견고해지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길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자녀로 하여금 사회의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나갈 힘을 길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녀가 행복하게 세상을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면 좋은 부모가 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책방에 들렀다 익숙한 제목에 구입한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살게 된다면 그 때는 더 많은 실수를 하리라 보다 느긋하고 유연해지며 이번 생보다 더 바보스러워지리라”로 시작하는 미국 켄터키주 작은 시골마을의 85세 할머니의 시의 제목과 동일한 책,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의 저자는 43세의 나이에 파킨슨병을 진단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생업과 가정, 그리고 건강을 돌보는 일에 성심을 다해 살아온 저자는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다시 자녀를 키운다면,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좋은 부모 신드롬’이라는 불필요한 압박 가운데 자녀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성경적으로도 부모는 더 좋은 부모가 되고자 애쓰기보다 부모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자녀를 위한 가장 최고의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언약을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자녀를 향한 최고의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부모가 되고자 애쓰는 모습이 자녀를 향한 불필요한 주인 의식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어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4절a)” 도비야의 도발 앞에서 뿐 아니라, 느헤미야는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 2:4)”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로서 왕을 모셨던 느헤미야는, 그의 얼굴에 가득한 수심의 이유를 묻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할 삶의 방법과 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일을 행하기 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필요한 일을 급하게 구하는 총알기도 혹은 화살기도이기에 미사여구나 찬송은 없었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도비야가 도발할 때, 상상도 못할 계략과 책략으로 낙심시키려 할 때,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도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The Provocation of Tobiah

(Nehemiah 4:3-4)

Rev. Kyu Sam Han

The Book of Ezra and the Book of Nehemiah can be considered as a single book from the perspective of "building the house of God". The house of God is composed of the temple Ezra rebuilt and the wall Nehemiah built. It was a structure in which a wall surrounded the temple in the center, but the temple reconstructed in the book of Ezra was much more trivial compared with the temple built by Solomon. Older people who had seen the glory of Solomon's temple even wept regretfully when they saw the size of the foundation of the temple being rebuilt. However, even though it was not a temple built by the hands of the king and the best professionals and with the best resources like a temple built in the period of Solomon, it was meaningful because it was a temple built by the people's co-operating together. The temple was small, but the wide surrounding wall had the same meaning as the former temple had. The main point emphasized in the sermon about Nehemiah last year was, "The wall of the temple can be seen as a home, and the work of establishing home with the covenant and word of God by the people of God is the very establishment of a wall." Especially, even today, since we keenly need to establish the temple and its wall, I have examined the model in which the wall was expanded into the world through Nehemiah. In the text of Nehemiah, we are to examine, appears the power opposing the process of building the wall. Tobiah and Sanballat are representative figures. Sanballat is conjectured to be a Samaritan governor, and Tobiah, who appears in the Bible as 'the Ammonite', 'a servant', was a governor dispatched by Persia, but he was a very wicked man. As we observed from the case of Onesimus in the New Testament, the fact that someone was a servant did not dominate the one's personality. But, Tobiah was a man who has meanness and obsession, and a conspicuous trait of trying not to let go of power. Tobiah was also a super figure in the social networks. Despite his status as a servant, he became a son-in-law of a prestigious family, and again, he also secured the position by which he can use great influence on the Jewish society through making his son marry the daughter of another prestigious family. Tobiah was also so resourceful that, according the end of the book of Nehemiah, he who interfered with Nehemiah's ministry was greatly rebuked, but while Nehemiah visited King Artaxerxes of Persia for a while, he occupied a large room in the temple as his office. Despite the fact he ridiculed, discouraged, threatened, and even conspired to kill the people who worked for the family God was pleased with, people around him praised Tobiah, who was really a man of serious problems, as a good person(Neh 6).

The provocation of Tobiah

"Tobiah the Ammonite, who was at his side, said, "What they are building—even a fox climbing up on it would break down their wall of stones!"(v.3). Tobiah provoked Nehemiah and the Jews in order to oppose rebuilding the wall. The wall in the ancient period was a means of defense to protect the people inside the wall when invaded by enemies. The wall needed huge siege weapons to be destroyed so that the word, 'even a fox climbing up on it, he would break down their wall of stones' was the insult toward Nehemiah and the Israelites. The wall needed huge siege weapons to be destroyed, so the word, 'even a fox climbing up on it, he would break down their wall of stones' was an insult toward Nehemiah and the Israelites. The Israelites were discouraged by the provocation of Tobiah, but they tearfully countered the opposite power with a shield in one hand and a spear in the other. Fighting while working, and working while fighting, they continued to build the wall. If we apply to build the wall to us today, it can be said to be the work of establishing the house of God, a family. I ministered immigration churches for long, and I knew those who immigrated in the early and middle of the 1980s tearfully endeavored to settle down. Those who had two jobs were common, and they came back home tired and nursed their children. As a result, there were really a lot of people who had never been even to neighboring towns except for home, the working place and the church in more than twenty years of immigration. I think the domestic circumstances were not so different. The first generation of war, who faced the Korean War as their grown-ups, were likely to

have devoted themselves only to working at the market, nursing children, and going to church. There might be 1.5th generation church members, who took after the model, spent their lives to serve home, the working place and the church throughout their lives. If so, what was it like to establish a home in these days? We can think to build a home for the present generation is easier compared with the case of the former generation because this generation has been relatively well-educated and belongs to a more abundant period, but rather, the youth generation these days seems to live in a much more difficult period than the former generation. To set up a family has become more difficult. Because they were socio-economically pressured to be fully equipped with the existential means like eatable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ogether with providing better quality educatio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for their children than for those of other families. Therefore, building a home is likely to be the second hard work to Nehemiah's building the wall. Nevertheless, a family must be established. It's because just as the temple becomes intact when the wall is established, so God's kingdom becomes stable and expanded when a family is established.

The way to become good parents

It seems greatly difficult to become good parents. It's because parents should raise their children to have the strength to overcome difficult situations in the society except for economic support. Moreover, if you think whether your children can live happily in the world, it is never easy to become good parents. I dropped into a bookstore last January and bought a book whose title is very familiar to me, which I'd like to introduce to you. The author of the book titled 'If I Had My Life to Live Over', which has the same title as a poem by an old woman aged 85 in a small rural town in the state of Kentucky, U.S.A., beginning with 'If I had my life to live over, I'd dare to make more mistakes next time. I'd relax. I would limber up. I would be sillier than I have been this trip.' was diagnosed with Parkinson's disease at the age of 43. The author, who has been devoting herself to working for the career as a psychiatrist, family, and taking care of health, says, if she has her life to live over, and nurses her children again, she would not try 'to make a good parent'. I agree with the author's claim that parents are educating their children under the unnecessary pressure of what we call 'the syndrome of good parents'. According to the Bible, it's because the feature that parents are working the road given to them rather than trying to become good parents is the best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It can be said that the best challenge for your children is to hold on to the covenant as believers, not to turn to the right or to the left, and to show your children how you live a life of doing your best. We should remember the feature of trying to become good parents too much can be unnecessary consciousness of ownership for your children. "Hear us, our God, for we are despised."(v.4a). Nehemiah prayed so much besides in front of the provocation of Tobiah. "The king said to me, "What is it you want?" Then I prayed to the God of heaven,"(Neh 2:4). Nehemiah, who served the king as a vassal of the Persian Empire, first prayed to God before he answered the king who asked the reason for the sadness on his face. It is the wisdom and way of life we should learn from Nehemiah. Nehemiah always prayed to God before he carried out a work. There was no rhetoric or praise since it was a bullet prayer, or an arrow prayer by which he urgently asked what is necessary, but he always prayed to God. I hope Nehemiah's prayer will become my and your life. When Tobiah provoked him, and when he tried to discourage him by unimaginable schemes and strategies, Nehemiah momentarily offered silent prayers and prayed before God. "See us, our God," he fell down before God. I hope in the Lord that the feature of us is that we really do our best as believers, work hard on what was entrusted to us, fell down before God, and could be the blessed passage for the next generation and our children to know God.

영역·이윤의

주간
충현



마더와이즈 '회복' 9기를 마치고서

“다시는 너를 버림 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풀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사야 62장 4절)

마더와이즈 9번째 사역을 인도하시고 모든 마더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마더와이즈 9기는 3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7주 과정으로 17명의 마더들이 신청하여 1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마더와이즈 회복은 이스라엘의 결혼풍습을 토대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회복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마더와이즈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은 제게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해주셨어요. 항상 휘청이고 의심하는 저에게 꼭 말씀 해주고 싶으셨나봅니다.^^ 함께 한 조원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열정을 배워갑니다. 교회 일에 열심으로 참여하며 삶의 문제들을 기도로 풀어가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A -

작은 소품 하나하나 섬세하게 챙겨주신 것에 감동받고 간식과 매 시간 마다 준비해주신 조장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내가 앉아만 있어도 축복과 사랑받는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지만 현실적인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늘 분주하게 살았던 저에게 잠시 내려 놓는 법과 심을 갖고 한걸음 뒤로 잠시 물러서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길 바랬고 사람들과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면서 살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택함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다시 몸부림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신부로 살아보길 기도합니다. - B -

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지만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완전히 주님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그 깨달음에 마더와이즈를 하면서 더 깊이 완전히 주님안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사랑의 깊음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이 진심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C -

교재를 통해서 처음엔 어렵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스라엘의 결혼풍습을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풀어나감이 생뚱하기도 했으나 말씀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던 것들이 이해되기도 하여서 감사하였고 많은 유익이 있었다.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소중한 것을 잊고 생각지도 못함이... 잘못된 것은 돌이키며 순결함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과의 동행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세상 끝 날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볼 예수님을 기대하게 됨이 지금 세상에서 살아감보다 더 행복하기에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한걸음씩 걸어가기로 소망한다. - D -



항상 부족한걸 알지만 행하지 않았던 기도의 자리와 묵상의 시간. 마더와이즈는 나를 그 길을 걷게 하셨다. 부모로써 아내로써 며느리로써의 지혜를 주시고 나눔이 밀린 적도 있지만 그래도 다 읽고 기도하다보면 그날그날 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다시 묵상을 잠시나마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더 리더님들의 섬김과 따뜻함에 늘 감동이었습니다. 시작하는 찬양은 저에게 항상 은혜를 부어주신 시간이어서 감동이었고요.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왜 그런지 그냥 뚝뚝 눈물이 계속 나던데 저는 우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싫어하는데 아주 첫날부터 그런 꼴을 보여주고 근데 그걸 사람들은 은혜 받은 거라 위로해주셨습니다. 진짜 왜 계속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두서는 없지만 너무너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 E -



마더와이즈를 통해 묵상의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양육서적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말씀을 기준으로 가정을 바라보는 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원천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 F -

교회설립 70주년 독서감상문 글짓기 & 그림 그리기 대회

충현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며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며 교회됨의 역할을 상기하기 위해 교육 위원회 예꿈 양육부 주관으로 그림그리기 대회 및 시, 산문, 독후감상문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 총 120여명의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했고, 각 부서별로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현교회 미래 세대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림그리기 수상자>

유아부

우수상: 조이설, 이해리, 전수찬, 조하은

유치부

최우수상: 정예은

우수상: 이시우, 이세인

장려상: 홍아란, 정지이, 안채원

유년부

최우수상: 조은서

우수상: 곽주아

장려상: 조혜인, 나윤채, 조예은, 김한그루,
임세아, 임주원, 이하나, 김연재

초등부

최우수상: 김민채

우수상: 윤서원

장려상: 김혜린, 이서윤, 김리우

중등부

최우수상: 박시은

우수상: 권예승

장려상: 구예서, 이다빈, 김한영

고등부

최우수상: 김성은

우수상: 이지현

장려상: 이진렬, 정태훈



<독서감상문 및 시, 수필 수상자>

유년부

최우수상: 장아라

우수상: 정예원

장려상: 김가현

초등부

최우수상: 안예은

우수상: 조아인, 곽시아

장려상: 장윤아

중등부

최우수상: 서예은

우수상: 조예인, 김한을

장려상: 이규민, 송푸름, 정지후, 노하윤

고등부

최우수상: 이윤재

우수상: 이수현, 전예준

장려상: 윤예희, 최성민, 김하진, 김시은



2023년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충현교회 교회학교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맛있는 팝콘과 솜사탕, 다양한 놀이를 만들어 우리 미래 세대들을 귀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충현교회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귀 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주일

2023년은 교회설립 70주년이자 장애인 부서 설립 3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며 충현교회 장애인 사역이 한 단계 성장하고, 장애인이 교회의 한 가족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 장애인주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날짜: 5월 14일 ~ 5월 28일

시간: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본당 1층, 제1교육관 1층, 제2교육관 3층



	행사내용	날짜	시간	장소
Event 1	장애인전시회	14일~28일	상시운영	코니카페
Event 2	성경말씀 캘리그래피	21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코니카페
Event 3	장애인 응원 메시지 보내기	21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코니카페
Event 4	도전! 장애 OX 퀴즈대회	21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코니카페
Event 5	장애인 인식개선 간식나눔	21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코니카페
Event 6	사랑나무 꽃피우기	21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제1교육관 1층
Event 7	발달장애인 사진작가 포토존	21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제1교육관 1층
Event 8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설문	21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제1교육관 1층
Event 9	발달장애인 굿즈 나눔	21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제1교육관 1층
Event 10	STT 스마트글라스 체험전	21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제2교육관 3층
Event 11	성경암송 & 찬양	26일	금요일집회	본당
Event 12	복화술 인형극	28일	오후 1시 ~ 오후 2시	갈릴리홀



뮤지컬(요한계시록) 티켓 판매 안내

초청 뮤지컬 <요한계시록>의 관람을 위한 교구/부서별 1차 단체판매가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2차 개별판매 및 회차 교환을 실시합니다. 여전히 물량이 제한적이라 원하시는 관람 시간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5/14(일), 5/21(일)

시 간: 10시~2시 *완판 시 조기 종료합니다

장 소: 갈릴리홀 앞 판매부스

가 격: 성인 1만원, 청소년 5천원 (*정가 4만원)

공연일정: 1회차 5/26(금) 오후 5시

2회차 5/27(토) 오후 1시

3회차 5/27(토) 오후 5시

* 공연 당일 현장 티켓판매는 불가

* 공연은 지정좌석제로 운영

* 교환권 구매 후 해당 공연 시작 1시간 전 창구에서 좌석티켓으로 선착순 교환

* 교환권/좌석티켓 환불은 불가, 양도는 가능

문의) 최은빈 집사 010-9799-1357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용)

※ <주일헌금>, <지명헌금>은 개인헌금으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기부금영수증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 ※ ‘디모데스마트성도앱’ 설치 방법
 -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디모데스마트성도앱’ 검색 후 설치
 - 교회이름/담임목사이름 입력 → “내용보기” 클릭 후 동의 → 이름, 전화번호 입력 → 6자리 인증번호 입력 후 가입완료

※ 선교관 1층 사무국 회계과로 직접 오셔도 발급 가능합니다.
문의 : 사무국 회계과 / 02)562-1915 또는 070-5077-8865

※ 헌금자 이름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동반헌금자는 가능)
교적번호가 같은 가족이라도 합산 불가하며 개별적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스마트성도앱’ 이용 발급

- ① 증명서(기부금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② ‘개인출력’을 선택합니다. 선택 후 동반헌금을 포함한 발급가능금액이 표시됩니다.
- ③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④ 기부금증명서의 발급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금액수정은 동반헌금인 경우 출력가능 금액만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⑤ ‘발급’을 눌러 발급을 진행합니다.
- ⑥ ‘PDF’ 저장 또는 이메일로 ‘PDF 발송’을 눌러 발급을 진행합니다.

5월 정기 당회	일 시: 5월 14일(오늘), 찬양예배 후
----------	-------------------------

5월 권사회 월례회	일 시: 5월 24일(수) 12:00 수요일예배 후 본당 및 실시간 영상
------------	--

금주 동역교회 파송			
전도지역		팀장 및 파송인원	기간
9교구 1팀	충북 영동 산저교회	김성수 안수집사 외 12명	5월 19(금) ~ 5월 21일(일)

결혼	1. 윤희철 군(윤호식 집사·김미숙 타교 집사의 아들)과 이민선 양(이성희 안수집사·김향숙 권사의 장녀, 8교구) / 5월 20일(토) 11:20 웨딩시그니처 4층 아너스홀 2. 윤보영 군(윤철구 씨·김재숙 씨의 아들)과 유채현 양(유지철 안수집사·황현주 집사의 장녀, 9교구) / 5월 20일(토) 13:00 충현교회 갈릴리홀
----	--

출산	1. 박건후 집사, 백민아 집사(창년3부) / 출산, 딸, 5월 4일
----	--

별세	1. 김아진 은퇴집사(3교구) / 9일 별세, 11일 장례 2. 신현철 타교권사(고광국 집사의 모친·조화순 권사의 시모, 6교구) / 9일 별세, 12일 장례
----	---

예배 담당(5/17~5/21)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5/17	수요 I	하나님의 은혜로 (고전 15:10) 김영근 목사	김유석	이호숙
5/19	금요일집회	칭의의 원리 (롬 3:26-31) 한규삼 담임목사	박성덕	
5/21 장애인주일	주일 I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시 2:7-8) 한규삼 담임목사	박성덕	양효민
	주일 II		문진호	현준봉
	주일III		박영환	안연식
	주일찬양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레 19:14) 김유석 목사	김승래	정영미

교구별 주력새벽기도(5/15~5/21)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5(월)	김주한/문봉만	민 28:16-29:11	11교구
16(화)	한규삼/윤순규	민 29:12-40	전교인
17(수)	박성덕/최은열	민 30:1-16	전교인
18(목)	권혁근/류기제	민 31:1-24	7교구
19(금)	위안복/전종욱	민 31:25-54	4교구
20(토)	윤준식/윤준식	민 32:1-19	전교인
21(주)	박요셉/박요셉	민 32:20-42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 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일 집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 전 5:00	갈릴리홀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청년 1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청년 2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청년 3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12교구(그루터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 금주 화요일집회 강사 : 김유석 목사
* 금주 기도원 봉사 : 3교구

구분	시간	장소
사랑부	10:45~11:50 (성인) 11:00~12:00 (아동, 청소년)	사무엘홀(제2교 204호)
	12:20~13:30(에스라) 12:40~13:40(아볼로)	디도홀(제1교 401호)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새가족기본과정부	오 후 12:10	베다니홀
새가족양육부	오 후 12:10	엠마오홀
11교구(새가족)	오 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일집회시)	제2교육관 4층
예꿈 양육부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예꿈교실(제1교 7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여호수아홀(제2교 301호)
총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발달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총현복지관
총현평생대학원	(목) 오전 11:00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전도위원	신광철 총현동산이사장	이상석 당회서기	오순도 소망부장	양기수 총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9교구장	이상섭 동산부장	이보신 인사위원	이상해 기도원부장	김성호 종보기도부장
조중민 봉사위원	이상복 교구위원장	지규성 선교위원장	김영주 전도위원	최민석 할렐루야전양부장
김명성 차량안내부장	이창희 총현복지재단이사장	백봉선 재정위원장	박재현 행정위원	임광신 예배위원장
이흥기 감사위원장	송한천 5교구장	조윤준 세움위원장	최현구 인사위원	남용승 인사위원
김영환 전도위원장	변창대 당회부서기	허만선 찬양위원장	안연식 10교구장	현준봉 봉사위원장
양효민 행정위원장	박원화 성례부장	이상배 기획위원장	박명근 8교구장	김중훈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성경통독부장	전성욱 이매전양대장	박건일 4교구장	배종락 건축위원장	김철남 예루살렘전양대장
김희동 3교구장	홍금성 교육위원장	강태영 외선부장	장기락 별관위원장	홍순길 2교구장
정인욱 기획위원	남중호 차세대위원장	윤순규 1교구장	김상열 임마누엘전양대장	이정환 6교구장
이양선 7교구장	박성철 11교구장	김열환 예배부장	김세종 선교위원	한홍연 헌금부장
최규욱 예배위원	최승민 재자교육훈련부장	이서재 평생대학원장	송문식 인내부장	문영규 12교구장
김충식 전도위원	신현욱 실로암대장	임병익 사랑부장	박노의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1교구	강성은 선교위원회	김주한 11교구	이성환 12교구	권혁근 7교구
윤성복 9교구	박동진 2교구	문진호 3교구	정석훈 8교구	김유석 에바다부
김상래 브릿지	전영재 10교구	박영환 6교구	위안복 4교구	윤준식 5교구
임대영 고등부	신경철 초등부	임진실 사람부	김승래 신혼가정부	배진현 유치
박성덕 청년2부	권순동 청년1부	박요셉 청년3부	이다현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5교구	주은숙 6교구	이수경 평생대학원	홍명주 9교구	유현정 유년부
조기숙 7교구	여정광 8교구			

■ 교육목사

선명환 외선부	최준호 소망부
------------	------------

■ 교육전도사

김희영 유아부	이영미 유치부
------------	------------

■ 협력선교사

강기엽 최동현	윤해균	윤병범	강영미	한용관
------------	-----	-----	-----	-----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웁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김경행	김산숙	김영암	김형진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요셉	홍경화		